

星湖 李瀼의 退溪觀과 그의 實學論**

李 楠 永*

• 目 次 •

I. 序說

1. 問題의 提起
2. 星湖의 學問의 基盤

II. 퇴계에 대한 尊崇과 學的 私淑

1. 人間的 欽崇의 念
2. 理氣四七論辨에 대한 見解
3. 退溪의 時務에 대한 評論

I. 序 說

1. 問題의 提起

근세 이래로 星湖 李瀼(1681~1763)의 학문과 사상의 史적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상이한 견해가 따르고 있다. 그 하나는 茶山 丁若鏞(1762~1836)에 의한 기록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성호의 학문이 퇴계이후로 이른바 <繼往開來>하였다는 것이다.¹⁾ 다른 하나는

* 서울대 철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6호(1982) 게재논문

1) 이는 원래 茶山이 鹿庵 權哲身(?~1801)이 말한 바를 仲兄인 丁若鏞에게서 듣고 鹿庵의 墓誌銘에 추모하여 기록한 것으로 茶山자신의 심회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용원문은 다음과 같다. 『公少時, 慕夏軒, 嘗曰, 退溪之後, 夏軒之學, 有本有末, 夏軒之後, 星翁之學, 繼王開來, 此仲氏所聞』(興猶堂全書 1, 鹿庵權哲身墓誌銘, 附見閑話條)

爲堂 鄭寅普(1892~?)의 설로서 조선 근고의 학술사를 전개과정에서 보면 磻溪 柳馨遠(1622~1673)이 一祖이고 성호가 二祖라고 말하고 있음이다.²⁾ 전자의 의미는 星湖의 학문이 주로 퇴계 이래의 경학 또는 도학을 일면 계승하고 일면 개척하였다는 것이겠고, 후자의 뜻은 성호가 柳磻溪의 학풍을 계승하고 이른바 <經世致用的 學>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라 하겠다.

성호의 학문적 섭렵과 사유의 폭은 매우 광범하거니와 앞의 두 견해는 성호의 학문과 사상에서 보다 주류를 이루는 면을 강조한 데서 표현된 것이라 짐작된다. 사실 성호는 유학에 관하여 상당한 비중으로 심오하고 진지하게 설명과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그 외의 문학·역사·문물·민속·지리·제도·천문·서학 등에 걸쳐서도 일가견의 創見을 진술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호는 일반적으로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로 주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성호의 유학자로서의 특질은 거의 논의되어 오지 않는 데서 성호를 단순히 치세에의 처방가나 개혁론자로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경향이다. 만일 이 같은 제한된 성호의 이해가 全稱化된다면 성호의 학문 목표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성호의 사상적 이상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세속적인 능률주의에서 맴돌기 십상이다.

성호가 이왕에 유학자이고 또한 경세치용론자임을 주지하는 이상 그의 이 양자사이의 논리적 필연성은 없지 않을 것만 같다. 그는 유학자적 발언에서조차 <致用>이나 <務實>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호는 유학자의 입장에서든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성리학자로서 단순한 그 옹호론자만도 아니었다. 여하튼 본론은 성호가 성리학자이면서 또한 실학자인데서 양면이론의 그 논리적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성호의 학문적 인식에 보다 전체적이고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

2) 鄭寅普 舊園國學散藁(文教社, 1955), p.71

이 되기를 시도하는 바이다. 이같은 문제해명의 수행에 있어서 또한 깊이 관여되고 있는 퇴계의 학문과 사상이 성호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星湖의 學問的 基盤

성호의 학문과정은 26세를 분기점으로 하여 구분된다. 그는 젊어서 學子業一科學工夫를 하여 오다가 집안의 참화가 있는 후로는 道學工夫에로 전념하는 학적 전환을 취하였다.

성호는 경기도 광주 침성리(현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성포마을)가 고향으로 당시 몰락하여 가는 남인계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인 李夏鎭만 해도 이른바 庚申大黜陟(1680)으로 인하여 임직인 사헌부 대사헌에서 진주목사로 좌천되었고, 곧 이어서는 그 자리까지 파직되면서 평안도 운산군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성호는 이곳에 귀양살이 중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에 부친은 謫所에서 사망함으로써 성호로서는 부친에 대한 기억조차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고향에 돌아와 편모슬하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면서 둘째 형인 剡溪 李潛에게서 受學하였다. 仲兄이 진사로서 조정에 상소하여 당시의 집권당인 노론을 비판하며 장희빈을 두둔했던 것이 도리어 역적으로 몰려 급기야 杖殺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친에 이어 仲兄의 遭禍는 성호에게 官道에의 지향을 바꿔놓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때가 26세(1708) 무렵으로 그는 그후로 두문불출하고 도학공부에만 전념하고 평생을 처사로 은거하는 <辛苦의 生活>³⁾을 걷게 되었다.

성호의 분연한 각오는 <求道の 志>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유가경전과 정주성리서를 본격적으로 섭렵하고 俯讀仰思하여 거듭 음미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퇴계의 문집 또한 적극적으로 접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공부함에 一字一義도 빠짐없이 분명히 이해하여 갔고, 생활에서는 이른바

3) 星全上, 권24, 面8, 答安百順戊辰

自修力踐을 하여 갔다.

그는 경학공부를 착수하던 초기에 먼저 『孟子』를 읽고 곧 「孟子疾書」를 썼고, 다음으로 「大學」, 「小學」, 「論語」, 「中庸」, 「近思錄」, 「心經」, 「易經」, 「書經」, 「詩經」 등을 차례로 읽으면서 이들에 각기 疾書를 집필하였다. 그 후 「家禮疾書」를 포함하여 이들을 쓰는데 십여년이 걸렸다. 疾書란 이른바 <隨閱輒錄>—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요지와 문제를 심사 끝에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성호의 이른바 <前儒未發의 旨>가 담겨있음이 많다. 성호의 사상이 단지 <依樣>에 멈추지 않고 <自得>을 힘썼다는 표현이 이에 근거함이 많다.

성호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주자의 성리학적 신유학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다시 근본 유학으로 소급함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는 朱子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했고, 주자의 이른바 「학자는 의심을 많이 가져서 무방하다. 작은 의심은 조금 진보하고, 큰 의심은 크게 진보한다」(學子多著疑不妨, 小疑則小進 大疑則大進)는 말을 깊이 음미하고 있다.⁴⁾ 星湖는 懷疑와 思素가 학문을 진전시킴에 귀중한 추진력으로 믿었음에 분명하다.

한편 성호는 주자의 「近思錄」편찬의 공을 옛날 孔會思孟 四자가 四書を 펴낸 업적에 못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책자가 단지 <簡奧>가 심하여 초학으로서는 이해의 어려움이 따르나 오래 思素하여 추궁하면 그 뜻을 깨우치게 되고 그때는 마치 햇빛이 창을 통해 비추니 먼지 위에 앉아있음을 아는 것과 같다고 피력하였다.⁵⁾ 성호에게 있어서 「近思錄」은 四子에로 이르는 사닥다리(階梯)와 같다고 간주하였다. 사서에 이르면 보다 용이하게 <希聖>과 <希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

한편 성호는 경학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림을 공감한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

4) 星全上, 권31, 面5, 與李景祖辛己

5) 星全上, 권49, 面11, 近思錄疾書序

6) 星全上, 권54, 面19, 跋近思錄續錄

다. 예컨대 「孝經」, 論·孟·易·詩·書, 「禮記」, 「周禮」 및 「春秋左傳」의 자수가 모두 합하여 47만 4천 9백 95자임을 헤아리고 하루에 삼백 자씩 읽어간다면 4년여만에 끝낼 수 있고, 또한 각종 주설과 史書를 읽어가는데 수년의 노력을 더 해야 하고, 그 밖에 정주관계의 그 많은 문장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것으로 「退溪集」과 국사를 더 읽어야 하고 이를 모르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된다고 권하고 있다.⁷⁾

성호의 조카인 李秉休는 星湖의 <家狀>을 쓰는 결론에서 『星湖의 마음은 朱子를 배우이고, 이르고자 함은 聖人되는 것』(其心則學朱, 而其詣則希聖也)⁸⁾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견해로서는 우리나라(東國)에서 퇴계이후로는 성호만치 크게 갖춘(大備) 儒賢이 없다고 하면서, 성호야 말로 宋代 二程子가 있는 후에 朱子(晦翁)의 大成과 같다고 견주고 있다. 李秉休에 의하면 성호는 동방의 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호 자신은 성리학적 신유학의 기초위에서 사다리를 오르 고 근본유학에로의 환원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호는 퇴계의 진면목을 보고 따르게 되며, 그의 학문적 사상적 목표는 성인을 바라고 希天의 천인합일이거니와, 가까이로는 퇴계를 따르고 그에 이름을 뜻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성호의 마음안에 자리잡고 있는 퇴계의 像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退溪에 대한 尊崇과 學的 私淑

1. 人間的 欽崇의 念

성호가 퇴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그가 과학공부를 중단

7) 類選 2上, 誦讀得社條

8) 星全下, 附錄 권1, 面17, 家狀

하고 도학공부를 착수한 26세때라고 짐작된다. 그는 그 3년후에 영남 지방을 순방하는데 백운동서원과 청량산을 거쳐 급기야 도산서원을 예방한다. 그의 서원에서의 감회는 지극히 감동적인 기행문으로 그의 <謁陶山書院記>⁹⁾에 기술되고 있다. 그는 노년기에도 도산에의 <拜謁>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비단상자(巾笥)에 넣어 둔 당시의 기행기록을 다시 펴 보노라면 홀연히 一月春風の 느낌이 난다고 술회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성호는 퇴계선생이 태어난지 꼭 <第三辛酉>~181년후의 같은 해에 태어났음을 호뭇해 하고 있다. 퇴계가 58세때에 도산서원의 天淵臺가 지어졌고 그 3년후에 巖栖와 翫樂齋, 隴雲精舍가 차례로 세워졌음을 헤아리면서, 당시 59세였던 성호는 180년전의 이맘 때에 천연대가 세워졌고 내후년에는 巖栖가 세워질 해로구나 하고 즐거워 하였다.¹¹⁾

퇴계선생을 애모하기는 비단 성호만이 아니라, 한국인(東人)으로서는 대개가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기 이를데가 없다(愛慕之極, 靡不至也)고 그는 보고 있다. 성호에 의하면 퇴계가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전국 민적으로 愛慕尊慕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二千餘年을 지나면서 退溪子 李子가 태어남에 六經을 관통하고 朱子로써 依歸를 삼으니 殷나라의 실질과 周나라의 文采가 그에 의하여 빛나게 대성하였다. 오늘날 천하가 혼란한 가운데 예악이 씻은 듯 사라졌거니와 오히려 우리나라는 선왕의 예법의 옛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니 아마 天意일 것 같다.』¹²⁾

성호는 퇴계를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근본유학과 신유학을 함께 꿰뚫어 알고 이른바 유가적 이상사회의 기풍인 <文質彬彬>을 대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조차 사라진 儒風의 良俗이 근래에 퇴계에 의하여 대성된 터에서 이 조선에서 태어났음을 행운이라 여겼고, 퇴계의 말씀과 행동(언행)이 있음에서 이를 복돋고 보존하는 것이 斯文

9) 星全下, 권53, 面 5~8

10) 星全下, 권55, 面9, 跋五賢錄

11) 星全下, 권56, 面21, 陶山圖跋

12) 星全下, 卷50, 面1, 李子料語序

의 정신이라 보았다.¹³⁾

성호는 또한 자신이 퇴계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는 못되나마 그의 책들을 읽을 수 있음에서나마 기쁨을 지녔다. 그는 퇴계의 인간과 학문의 신뢰와 欽崇의 마음에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의 요지를 서술하였다. 그는 이를 일단 「道東編」이라 이름짓고 40여년을 발표하지 않고 남겨둔 것을 安鼎福(1712~1791)의 도움으로 주자의 「近思錄」과 같은 체제로 편집하여 이른바 「李子粹語」가 刑行되게 되었다.¹⁴⁾

성호는 퇴계선생을 退陶子 혹은李子라고 칭하는데 아무런 주저가 없었다. 그리고 성호가 퇴계에 대한 推尊이 지극한 근거는 이른바 <禮說>이나 <家禮>의 면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의 면에서 모범이었기 때문이다. 성호는 퇴계가 말로 우리 동방에서 喪禮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정신을 <反躬踐實>하는데 일관하였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퇴계의 禮說이야 말로 禮를 생각하는데 지침이 된다고 말한다.¹⁵⁾ 한편 그는 퇴계의 서신문답이 바로 한권의 가례라고 간주한다. 古來의 三禮는 후래에 와서 時宜에 맞지 않고, 朱子의 「家禮」는 이견이 속출하는 터에, 퇴계는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에서나마 百代가 지난 당시에서 禮에 관한 백대의 연혁을 살폈다는 점에서 그 역량을 감탄한다. 성호는 여기서 퇴계집에 散見되는 관계 문장을 분류 편찬하여 「退溪禮解」를 펴내기에 이른다. 동방의 퇴계는 성호의 평가로서는 『周末의 聖人 태어남과 같고, 喬嶽과 泰山을 우리러 봄과 같고, 金石을 믿을 수 있음과 같다.』(東方有退陶, 如周末生聖人, 仰始喬泰, 信如金石)고 견주어 말한다.¹⁶⁾ 즉 퇴계는 성호의 평가기준으로서는 동방의 공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성호는 老境에 접어들어서도 일찍이 작고한 부모에 관하여 말이 미칠 때면 목메인 嗚咽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모습조차 전혀 해

13) 위의 책

14) 위의 책

15) 星全下, 권49, 面1, 李先生禮說類編序

16) 星全下, 권54, 面24, 退溪禮解跋

아릴 수 없는 부친의 早失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 슬픔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그는 장성한 후 先考의 祭日을 맞으면 이른바 追服의 차림을 하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퇴계선생이 역시 생후 7개월에 부친을 잃은 바 되었으나 상례법에 따라 먼 훗날에 와서 追服居喪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호는 퇴계의 禮行을 따르면서 『퇴계는 내가 스승으로 섬기거니와 어찌 감히 지나칠손가』¹⁷⁾라고 중지하였다고 전한다.

성호가 퇴계선생을 師表로 삼고 尊信欽崇하는 면모는 퇴계의 학문과 생활의 모든 것이 垂範的이고 또한 시종일관한데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참된 학문과 실천의 조화와 균형 의식은 바로 근본유학의 宗旨와 다를 것이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성호는 그의 『韓隱先生喪祭禮序』¹⁸⁾에서 『무릇 우리나라에 퇴계가 있음은 마치 중국에 夫子가 있음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이) 백성을 낳은 이래로 퇴계에서만치 盛한 때가 없었다』(夫我東之有退陶, 猶之華夏之有夫子, 故自有生民以來, 未有盛於退陶也)고 하고, 『書退溪先生筆後』¹⁹⁾에서도 역시 『동방에 퇴계가 있음은 중국에 공자가 있음과 같다』(東方之有退陶, 猶中國之有孔子)고 거듭 밝히고 있다.

2. 理氣四七論辨에 대한 見解

성호는 이 理氣四七論에 관해서 30대에서부터 80세가 넘도록 여러 가지 시각에서 실례를 들어 가면서 해명을 끊이지 않았다. 성호의 이 문제에 관한 견해는 매우 논리적이고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명작업이 지속되었던 이유로는, 당시의 儒者들이 계속 이론이 속출하고 만족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서 성호는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설명을 가한 듯 하다.

17) 星全下, 부록 권1, 面21, 行狀

18) 星全下, 권50, 面6

19) 星全下, 권56, 面1

이 문제에 관한 성호의 기본이론은 퇴계의 互發論을 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며, 이에 반대하는 異論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舜堯의 人心·道心에 관한 교훈은 학자라면 누구나 두뇌로 삼아야 할 가장 근원적인 유가정신으로서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 맹자는 주로 四論을 말하고 禮運篇에서는 주로 칠정을 말한 것으로 성호는 그의 <四七新編序>²⁰⁾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히 그 의미를 이해하였던 데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末學淺識>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지고 <新奇>를 주장하기 좋아하는데서 의미가 밝혀지기 보다는 오히려 흐려져 버렸다. 그에 의하면 朱子가 이른바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란 것은 모든 설명을 대표하는 <公案>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퇴계가 鄭秋巒의 說로 인하여 이 명제를 세운 것도 하나의 당위의 話頭로 말하지 않은 가운데 합치한 것으로 그는 해석한다.

한편 성호는 당시의 傑士인 기고봉의 논의는 그 당장에 깨닫지 못했던 터에 변설이 많아졌으나 끝내는 歸正하게 되었던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율곡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기고봉의 初見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어서 당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一途說로만 쫓으나 그 요령 부득함을 알고서 논변을 멈출 생각을 한 두번 하지 않았다고 술회한다. 결국 이들은 퇴계의 書에 되돌아 와서 깊이 연구해야 하고 바다물결만 치 많은 談論을 알지 않고서는 초학으로서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그는 <四七新篇後說>²¹⁾에서 一途說에 빗대어 말하기를 나무를 가리켜 나무라고 말하고 돌을 가리켜 돌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합하여 나무는 돌이 아니고 돌은 나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木石이 서로 다름이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거니와 四七論에 있어서는 하필 異論이 분분하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성호는 요즈음 사람들의 말에 만약 퇴계

20) 星全下, 권49, 面18~20

21) 星全下, 권54, 面27~32

선생이 계셨더라면 성실하게 웃으면서 분별하여 힘들이지 않고 확연히 그 차이를 밝힐 것으로 상상하기도 한다.

성호가 태어나기 얼마 전만 해도 심지어 퇴계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조차 겉으로는 무척 숭상하는 듯 하면서도 四七論을 논함에는 거침없이 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성호는 주목한다. 이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고 은연 중에 퇴계가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星湖에 의하면 愚伏 鄭經世(1563~1633)가 그 대표로서 그의 四七論은 모두 <舍陶就栗>이었고, 그럼에도 당시 퇴계의 문인제자들은 누구 하나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함에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호는 퇴계의 호발설을 이른바 <至到之言>이라 표현하면서 오해의 단서가 氣字에 있는 것으로 본다.²²⁾ 즉 그에 의하면 이른바 <理發氣隨>의 氣는 곧 方寸神明의 氣이고 <氣發理乘>의 氣는 형체에 周流하는 氣로 나누어 본다. 그는 氣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특징이 있다. 성호는 氣를 大氣와 小氣로 구분한다. 大氣는 一身을 周流하는 것이고 小氣는 方寸(心)을 출입하는 이른바 神明之心으로 본다. 또한 天地에는 大氣가 있고, 天地의 일부인 日月의 氣나 山川의 氣는 小氣로 구분한다. 朱子가 말한 것이나 人心이란 形氣의 私에서 생긴 것이고, 形氣는 단지 人字의 脚註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정자의 이른바 外物이 인체에 감각을 줌으로써 그 내부의 中이 움직이거니와 이에 칠정이 나온다(外物觸其形而動其中, 七情出焉)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성호는 自說에 뒷바침을 삼고 있다. 즉 칠정은 바로 감각적 반응에 불과한 것이며 그는 이를 形氣의 私라고 하여 方寸을 중심한 神明의 氣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결론적으로 인간의 감각작용은 기능을 發하는 데서 理가 탄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理가 發하는 데는 감각작용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호는 사단의 道心이 發하는 데는 形氣와는 아무 상관없이 <直發>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뒤따르는 것은 오히려 神

22) 星全上, 권15, 面4, 答洪亮卿重寅庚午

明의 氣라고 그는 설명한다.

성호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飢寒애락이 人心일뿐 아니라 飢寒痛痒이 또한 인심이라 보고 이들은 모두 形氣(感官)에 촉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²³⁾

그리고 성호는 주자나 퇴계의 이론에 따라 <理先氣後>의 체계에 입각하고, 따라서 <理帥氣卒>의 비유를 그대로 용납한다. 方寸의 神明之氣만이 理와 상관하는 한 성호의 해석으로는 이 氣는 항상 理에 뒤따르는 것이어야 하고 이 方寸의 卒인 氣가 先發하는 데서 理가 뒤따르는 바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성호의 이기론은 명백히 <主理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퇴계의 호발설을 전폭적으로 옹호하면서 특히 互發의 二氣 설명에는 퇴계가 언급하지 않은 설명방법으로서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다소 출입이 있다. 그러나 성호의 二氣의 구분은 율곡의 이른바 사단이 칠정중의 善一邊임을 反駁하는 데는 훨씬 용이한 개념의 마련이라 할 것이다.

3. 退溪의 時務에 대한 評論

원래 유학의 근본정신은 이른바 <爲己之學>(論·憲問, 衛靈公)의 확립이 아닐 수 없다. 爲己가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분야적 제한에서 벗어나 포괄자로서의 인간, 즉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유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修己>의 정신이고, 한편 이를 실천하는 <安人> 내지는 <博施濟衆>의 정신을 동반하는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 이 修己 또는 爲己의 유가적 정신은 그의 학문과 덕행에 걸쳐 始終如一함을 익히 아는 터이다. 퇴계의 한 술회를 들어 보면 『군자의 학문이란 본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일뿐, 이는 마치 深山의 무성한 숲속에서 한 그루 난초가 온종일 향

23) 星全上, 권14, 面1~4, 答權台仲 乙丑

기를 뽐내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바로 군자가 爲己하는 뜻과 合致하니 깊이 體案할 것이라』²⁴⁾고 한바 있다.

퇴계는 讀書求道の 林間생활을 매우 만족한 듯이 서술하고 있음을 그의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중의 이 맛을 그대는 아는가, 世事따위는 말할 건더기도 안 되네』(山中氣味君知否, 世事都無一句論)라고 읊기도 하고, <秋懷>라는 題下의 詩에는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르는 파리와 같다』(富貴等浮烟, 名譽如飛蠅)고도 하여 그의 無礙로운 虛心の 경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퇴계의 이 같은 생활과 심경은 자칫 소극적인 避世主義 내지는 은둔생활적 처세술이라고 해석되어질 혐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민생이 불안하고 남북의 外患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 법하다. 때문에 후대에 접어들어서는 퇴계로부터는 학문을 율곡에게서는 경장론을 주목하고 또 그 같은 제약에서 兩學者를 규정하려 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사상의 분석에 입각해 보아야 할 줄 안다. 여기서 문제는 퇴계나 성호에게 있어서 이른바 <知行>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퇴계의 知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並進論> 또는 <互進論>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先知後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星湖의 퇴계학 이해에 있어서도 퇴계가 성리학에 기본해서 근본유학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성호 역시 지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자나 퇴계와 거의 다름없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성호 역시 先知後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문과 실천의 문제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성호가 보기로는 양명학에서의 知行合一論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고 보면 오히려 知와 行은 선후의 분별이

24) 退溪全下, 언행록 권1, 敎人 李德弘記

있고나서 바람직하다고 내다 본다.

성호는 학문을 하는 데는 우선 <治心>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다고 했고, 治心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致知>를 선행해서 착수할 것이고, 知가 이른 다음에야 行이 가히 따라야 할 것으로 순서를 안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례에 따라서 六經 四書와 濂洛群哲을 배우고 또한 우리나라 儒賢의 책을 익혀 가면서 학문적인 근원으로의 환원, 즉 <沿流沂源>²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문도 알고 보면 배우고 묻는다는 행동적인 면이 있는 만치 지행은 원래 합일하는 것임을 일차적으로 그는 긍정한다. 그러나 行에도 이른바 <精案明覺>이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데서 그렇지 못한 이른바 <冥行>이 있고, 학문을 思素해야 함에도 잘못된 <妄想>이 있을 수 있는 데서 신중한 문제의식을 지닌다. 성호는 孝弟와 같은 것은 몸으로써 배움이고, 讀書窮理는 마음으로써 배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구분하고, 다음 독서공리는 우선 知가 行에 앞서야 하므로 결국 先知後行의 합리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학문과 思素—즉 지와 행은 두가지 일이 아니면서도 先後를 두고 접근하는 데서 이른바 <殆와 岡>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²⁶⁾

이 知行의 선후적 並進은 원래 퇴계에서 이론적 정착을 본 문제였다. 성호는 퇴계에서 그의 현실과 미래의 국가와 민생의 장래에 관하여 앞질러 생각하고 있음을 살핀다. 즉 성호는 퇴계가 黃仲舉에 주는 答信에서 남과 북의 우환이 조석간에 돌발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볼 때 무엇하나 믿을 게 없다고 불안해 한다. 퇴계는 사실상 그가 山林에서의 즐거움을 누린다 한들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²⁷⁾ 그리고 朝野에서는 태평을 누릴 때 퇴계는 時勢에 어두운 현실에서 미래를 우려하였음을 성호는 음미하면서, 과연 그후 40년이 채 안되어 임진란을 겪고, 인조 초에는 호란으로 민생이

25) 星全下, 권49, 面18, 四七新編序

26) 僊說下, p.5 지행합일

27) 退溪全上, 권19, 面3

도탄에서 헤매게 되었음을 통감하고 있다.²⁸⁾ 성호는 그때 우리 국민상하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양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였다. 나무에 쏘이 쓸 듯 국민이 퇴폐하고 국정이 소란한데 어찌 外夷가 틈타지 않겠느냐고 피력한다. 옛날 漢土의 漢나라와 晉나라에서 黨錮와 청담 때문에 社稷이 붕괴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신이 모두 협력하여 정치를 쇄신하고 更張을 회복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⁹⁾

성호는 평생을 산림처사로 초야에 머물렀으나 그의 선비로서의 기개는 冲天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가난한 선비이기는 하였으나 산림간에서의 포효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른바 후세치용의 諸說을 제시하면서 학문한 바의 실천으로서 국가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지니고 또한 중흥책을 모색한다. 그의 士農合一論이나 유비무환을 위한 문무겸중책의 강조는 성호의 유자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대립적이기에 앞서서 지행선후의 행동철학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호의 폭넓은 사고와 이론과 품행에서도 퇴계의 정신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성호의 도학정신과 치세사상은 지행의 兼全관계로 수렴시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28) 僅說上, 退溪先見

29) 黨說上, 堂習召亂